

올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완산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도로안전 등 4대 분야 중점

위기가정 긴급지원 · 경로당 안전관리 · 불법소각 단속도 집중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혹한과 폭설이 집중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겨울철 종합대책을 기동키로 했다.

완산구는 올 겨울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제설 등 도로안전 △산불예방 등 녹지관리 △위기가정 지원 및 노인안전 △환경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구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사전에 열화갑술 등 제설제 200톤을 구매해 강설에 따른 도로제설 작업에 민선

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 경사로 인해 폭설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급산사선과 동부대로에 대해서는 자동연수분사시설을 이용하고, 용흥초교 앞 등 사고 우려 지역 10개소는 열선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선진화된 제설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또 제설상황실 운영 이전까지 각 동별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래주머니를 배치하고, 소영살포기 점검도 완료키로 했다. 강설 시에는 적설량에 따라 자생단체 회원과 직원이 참여하는 제설작업을 통해 도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100여 명의 감시·진화인력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내년 초까지 운영키로 했다. 동시에, 겨울

철 제설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녹지 주변 일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원 시설물과 하천 시설물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위기가정 지원 및 노인안전 분야의 경우, 구는 동 자생단체 회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다양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돌봄기 관과에 따른 위기가정이 우려되는 취약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구청 생활복지과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후원을 통해 난방비, 연탄, 김치, 백미, 생필품 등 민간자원을 지원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복지지원에도 힘을 계획이 다.

뿐만 아니라, 구는 완산구내 312개 경로당 난방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고장제품의 긴급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단독주택형 경로당 출입구에는 탄소발열매트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끝으로 완산구는 전통시장 등 다량 배출 장소 중심으로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고,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고, 건설 공사장과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폐목재 등 불법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겨울철 한파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비하겠다"면서 "내 집 앞 눈치우기 및 이웃사랑 나눔 후원 등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행사 비수기인 늦가을과 초겨울 문화콘텐츠 보강을 위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경기전 광장에서 한옥마을 비보잉 상설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비보이, 한옥마을에서 즐기려

전주시, 내달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 마련

전주시가 주말을 이용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비보잉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행사 비수기인 늦가을과 초겨울 문화콘텐츠 보강을 위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경기전 광장에서 한옥마을 비보잉 상설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의 새로운 공연콘텐츠로 시도되는 이번 비보잉 공연 상설화는 세계를 제패한 '다스트포일' 등 세계적인 비보이를 배출한 전주시가 전주시역 출신 비보이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비보잉 공연은 '백스오브소울'이 연출한 힙합과 한옥마을에 걸맞은 전통 퓨전 테마공연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이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이 비보잉을 더욱 친숙하게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주한옥마을 새로운 인기콘텐츠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도 매우 감각적이고 다양해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주민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평일 야간 공연인 '한때를 가지하다'에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미술과 마임, 춤, 통기타, 어쿠스틱 밴드, 플루트독주 등을 선보이면서 여행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는 최근 전주한옥마을이 체험형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향후 문화공연 측면에서도 여행객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김용태 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은 최근 다양한 감각적인 문화콘텐츠가 도입되고 있으며, 젊고 매력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주한옥마을이 체험을 중심으로 한 여행지가 지속적인 인기여행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연간 다채로운 문화콘텐츠 도입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박병술 전주시의장

'국회 부의장상' 수상

지방자치 발전 공로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이 30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부의장상'을 수상했다.

국회부의장 상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4선의 박병술 의장은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및 전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장은 "기초의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주민과 소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중료 취소 신청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철)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씨(44)를 구인, 유치한 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지난 29일 가중료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30일 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존속폭행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19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가중료 허가를 받고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출소 후에도 주변 사람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는 등 보호관찰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A씨는 범죄경력 총 14회로 이중 음주로 인한 범죄로 인해 치료감호 1회를 포함 총 4회의 수용경력이 있으며, 이번 조치가 받아들여지면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는 30일 김진희 씨 등 청년상상놀이터 청년 20여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제3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청년상상놀이터 창업가, 전주 넘어 전국으로

서울숲 소셜벤처엑스포 참가

GS홈쇼핑 등 유동업체 대상

시제품 상담 · 홍보 활동 벌여

전주시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돕고 나섰다.

시는 30일 김진희 씨 등 청년상상놀이터 청년 20여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제3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청년 소셜벤처는 창업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청년들의 니즈가 융합된 새로운 창업의 형태로, 전주청년상상놀이터 청년들은 각자의 창업 아이템을 활용해 지역특화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전주청년상상놀이터 청년창업가 6명은 이번 행사에서 이마트, GS홈쇼핑, 11번가 등 2개 유동업체 바이어들을 상대로 시제품에 대한 상담과 홍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참여한 청년창업가들은 △조금화(지역 농산물 활용 담금기드) △간장구(한복과 LED결합) △김진희(창작 캐릭터를 활용한 예뻐, 탭블러 제작) △조민호(지역특화 향이리의 전통캔들) △김지희(전주 솜대 디퓨저) △나승아(전통보자기 매듭공예) 등이다.

이들은 또 KT&G,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연계 및 투자 상담을 통해 창업활동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했다.

청년상상놀이터는 전주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창작과 창작, 창업 활동으로 연

결하는 청년창업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다. 청년상상놀이터 1층 공유주방에는 요즘 주류 업계에서 주효이슈로 떠오른 담금기드를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상품화 시키고 있는 '금강기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은 창업활동 지원 공간인 창업코어 스페이스가 구축돼 있다. 건물 3층에는 총 7명의 청년창업가들이 입주해 청년창업의 폐기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청년창업가는 "대기업 바이어와의 상담 등 다양한 엑스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투자연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창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환우 위한 '어르신 섬김의 달'

전북대병원, 행복콘서트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29일 병원 본관 로비에서 환우와 내방객들에게 음악공연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힐링의 시간을 주기 위한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

어르신 섬김의 달을 맞아 전북대병원과 전북지역노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오선영)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콘서트에서는 전북지역 초, 중등생으로 구성된 JSM 어린이뮤지컬이 '갈라쇼'를 통해 아름다운 노래와 역동적인 군무를 선보이며 힐링의 시간을 만들었다.

공연을 펼친 JSM 어린이뮤지컬은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넘치는 전라북도 지역의 초, 중등생으로 구성된 비영리 문화단체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들이 전문가의 지도로 연기와 노래, 춤을 공



연하며 정기 공연은 물론 봉사 공연,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뮤지컬의 전문성과 대중성,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학생들이 접하는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면서 힘든 병원생활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병원을 방문하는 환우와 내방객들의 심리안정과 힐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35사단 의무대 금연클리닉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30일 35사단 의무대에서 군 간부 및 장병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실시했다.

이날 클리닉에서는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심각성과 군 내 장병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모두에게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전하며, 사전조사지 작성을 통해 운동방법과 식생활상담 등의 개인별 맞춤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군의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하여 군 간부 및 장병들에게 금연클리닉과 폐 나이, 혈압,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 장병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연병장·집회별 특화검진, 전문상담사와의 1대1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교통 자만마을 주변 안전해진다

완산구, 특교세 7억 확보 기린대로변 육류길 절개지 보강

전주시가 태풍과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높은 교통 자만마을 주변 절개지를 안전하게 바꾸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절개지 토사유출 및 일반 붕괴 우려가 있는 교통 자만마을 인근 기린대로변 육류길 절개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최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완산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 실시계획을 발주하고 내년 초에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 우기 전까지 절개지 안전사면 및 토사면 보강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은 전주한옥마을과 자만변화마을과 연계해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완산구는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완산구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가공원·동부대로·초록바위 절개지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및 자만동길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증차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정성환)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이지콜택시)를 증차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말까지 10대를 증차해 총 55대의 이지콜택시를 운행한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공단은 11월부터 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5년 전주시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장애인복지 1등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에 사업을 위탁했다.

현재 전주 지역 장애인콜택시 수는 법정기준에 부합하지만 공단과 시는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2000명을 비롯해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 수

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지콜택시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특장 승합차로 휠체어를 타고 승차가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일시적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 및 임신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정성환 이사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차량 부족 등 물리적인 제약으로 교통약자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증차 운영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